

본당 소식

2025년 4월 교황님 기도지향 :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우리 성당 카카오톡 친교사진방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9일 기도(4월26일~5월4일)’ 내용을 공지하였으니,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회의

- 청년구역 회의: 다음 주일(5/4) 미사 후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 교무금 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김효경 리타

전례 성가

입당 : 130 (예수 부활하셨네)
 봉헌 : 215 (영원하신 성부)
 성체 : 165 (주의 잔치)
 169 (사랑의 성사)
 파견 :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전례 봉사

이번 주일(4월 27일)	다음 주일(5월 4일)
1독서: 김효경 리타	1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2독서: 문형민 셜	2독서: 김영수 빈첸시오
복 사: 변가인 헬레나, 문수빈 미카엘라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리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리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4월 27일 (백)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님은 종으신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1독서 (사도행전 5,12-16)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13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14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15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16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9-11ㄴ.12-13.17-19)

9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0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1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12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13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써 드러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해치는 모든 악의 요소를 멀리하고 전쟁과 분쟁을 평화로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화를 온 세상이 온전하게 누리게 하소서.

3.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밝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겸손하게 살다 세상을 떠난 교황 프란치스코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따듯이 받아 주시어 천상 잔치에서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